



산업연관표

2020년 6월 24일 공보 2020-06-29호

# 보도자료

이 자료는 6월 2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2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과장 부상돈, 과장 이현영, 팀장 이인규

Tel : (02) 759-4405, 4460, 5095

Fax : (02) 759-4419 E-mail : ioteam@bok.or.kr

공보관 :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부 통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붙임>

---

## 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

2020. 6.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투입산출팀

# 차 례

## < 요약 >

I. 경제구조 .....	1
II. 산업연관효과 .....	8
III.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11

<부록1> 고용표 주요 개편 내용

<부록2> 주요 용어 해설

<별첨> 통계표

## 산업연관표 이용 시 유의사항

### 1. 산업연관표 개요

□ 산업연관표는 공급표, 사용표, 투입산출표로 구성되며, 우리나라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 투자, 수출 등 처분 내역을 행렬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서 경제 구조 및 생산, 고용 등의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합니다.

— 동 자료의 통계값은 당해년 가격 기준으로 증감률 등 해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어 있으므로 상위 부문 숫자가 하위 부문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고용표 개편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반영한 경제활동인구의 시계열 수정, 전업환산근로자의 측정방식 개선 등\*으로 2010년 이후 고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편내용은 “<부록1> 고용표 주요 개편 내용”을 참고

### 3. 산업연관표의 이용 및 공표시기

□ 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http://ecos.bok.or.kr>) “통계검색 - 간편검색”을 통해 아래의 통계 분류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COS 분류 항목명	통계표 명칭			
13. 산업연관표	2015년 실측표 기준	2018년 연장표	투입산출표 (생산자가격)	통합대/중/소분류, 기본부문
			공급표	통합대/중분류
			사용표 (기초가격)	통합대/중분류
			사용표 (구매자가격)	통합대/중분류
	고용표		통합대/중/소분류	

\* 2016년 산업연관표(연장표)부터 “기본부문 투입산출표”와 “소분류 고용표”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

□ 산업연관표(연장표)는 작성대상연도 종료 후 익익년 6월중 공표됩니다.

## < 요약 >

### I. 작성 개요

- 2018년 산업연관표(연장표)는 통계의 연속성 및 시의성을 위해 2015년 산업연관표(실측표)를 기준으로 부분조사 및 기초통계 가공을 통해 작성

### II. 2018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 경제의 특징

- 2018년중 우리 경제는 공산품, 전력, 건설 부문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축소된 반면 서비스 비중은 확대되었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생산 유발계수가 하락한 가운데 국내 총부가가치의 소비 의존도가 확대

#### 【경제구조】

- ① 총공급 및 총수요 : 대외거래 비중\* 상승(2017년 29.8%→2018년 30.2%)

\* 총거래액(총공급액 또는 총수요액)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입 비중이 0.3%p 상승

- ② 산업구조 : 서비스 비중 확대(총산출 : 45.6%→46.2%, 부가가치 : 59.3%→60.2%)

— 연구개발, 금융보험, 공공행정, 보건복지 등이 비중 확대를 견인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공급 및 총수요	총공급액(총수요액, 조원)		4,457.6	4,533.4	4,861.0	5,074.2
	총공급 구성비(%)	국내총산출	86.0	86.6	85.8	85.5
		수입(A)	14.0	13.4	14.2	14.5
	총수요 구성비(%)	국내수요	83.9	84.5	84.4	84.3
		수출(B)	16.1	15.5	15.6	15.7
대외거래 비중 <sup>1)</sup> (A+B, %)			30.1	28.9	29.8	30.2
산업구조	산출액 구성비(%)	공산품	44.5	43.3	43.4	43.1
		서비스	44.9	45.9	45.6	46.2
	부가가치 구성비(%)	공산품	29.5	29.4	29.9	29.5
서비스		59.9	59.7	59.3	60.2	

주 : 1) 총거래액(총공급액 또는 총수요액)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③ 투입구조 : 중간재 국산화율 하락(78.3%→77.7%)

—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간투입률(56.5%→56.8%)과 수입의존도(12.2%→12.7%)가 높아지면서 중간재 국산화율은 0.6%p 하락

④ 최종수요 : 소비 비중 상승(46.1%→46.6%), 투자 비중 하락(23.7%→22.9%)

— 소비는 주체별로 정부 비중이 0.4%p(11.3%→11.7%), 민간 비중이 0.1%p(34.8%→34.9%) 상승

— 투자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감소

⑤ 대외거래 : 수출률(18.1%→18.4%) 및 수입률(14.2%→14.5%) 모두 상승

— 수출률은 석유 및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상승

— 수입률은 광산물, 소비재제품을 중심으로 상승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계속)**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투입구조	중간투입률 <sup>1)</sup>	57.3	56.2	56.5	56.8
	부가가치율 <sup>2)</sup>	42.7	43.8	43.5	43.2
	수입의존도 <sup>3)</sup>	12.4	11.5	12.2	12.7
	중간재 국산화율 <sup>4)</sup>	78.3	79.5	78.3	77.7
최종수요 구성	소비	46.6	47.3	46.1	46.6
	투자	21.6	22.5	23.7	22.9
	수출	31.7	30.2	30.2	30.5
대외거래	수출률 <sup>5)</sup>	18.7	17.9	18.1	18.4
	수입률 <sup>6)</sup>	14.0	13.4	14.2	14.5

주 : 1) 중간투입/총산출액

2) 부가가치/총산출액

3) 중간재 수입액/총산출액

4) 국산품 투입액/중간투입액

5) 수출액/총산출액

6) 수입액/총공급액

## 【산업연관효과】

### ① 부문별 유발계수\*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 하락

\* 국산 재화 및 서비스 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부가가치·수입의 크기를 나타냄

- 생산유발계수(1.795→1.790) 하락은 **중간재 국산화율 하락**에 주로 기인
-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수입의존도**는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계수(0.780→0.773)가 하락하고 수입유발계수(0.220→0.227)는 상승

### ② 최종수요 유발효과\* : 소비의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비중 상승

\* 소비, 투자, 수출 등 당해년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산출액·부가가치·수입액의 크기를 나타냄

- **소비 비중**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면서 소비에 의한 생산(42.7%→43.2%), 부가가치(49.7%→50.1%), 수입(36.9%→37.7%) 비중이 상승

## 산업연관효과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문별 유발계수 <sup>1)</sup>	생산유발계수	전산업	1.813	1.807	1.795	1.790
	부가가치유발계수	전산업	0.774	0.791	0.780	0.773
	수입유발계수	전산업	0.226	0.209	0.220	0.227
최종수요 유발효과 <sup>2)</sup>	생산유발 비중(%)	소비	42.7	43.3	42.7	43.2
		투자	21.7	23.0	24.1	23.5
		수출	35.6	33.7	33.2	33.4
	부가가치유발 비중(%)	소비	50.5	50.5	49.7	50.1
		투자	21.3	22.3	23.2	22.7
		수출	28.2	27.2	27.1	27.2
	수입유발 비중(%)	소비	36.5	38.1	36.9	37.7
		투자	22.5	23.2	24.8	23.4
		수출	41.0	38.7	38.3	39.0

주 : 1) 국산품 수요 1단위당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 크기

2)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발된 산출액·부가가치·수입액 비중

##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①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량을 전일제 근로자 기준으로 평가

— 상용직(52.8%→54.2%) 비중이 1.4%p 늘어난 가운데 공산품(16.4%→16.1%) 비중은 0.3%p 축소

### 취업형태 및 부문별 취업구조<sup>1)</sup>

(만명, %)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자		2,412 (100.0)	2,428 (100.0)	2,453 (100.0)	2,450 (100.0)
취업형태별	임금근로자	1,760 (73.0)	1,778 (73.3)	1,796 (73.2)	1,799 (73.5)
	상용직	1,232 (51.1)	1,262 (52.0)	1,296 (52.8)	1,327 (54.2)
	임시·일용직	528 (21.9)	516 (21.3)	500 (20.4)	473 (19.3)
	자영·무급가족	652 (27.0)	649 (26.7)	657 (26.8)	650 (26.5)
부문별	농림수산물	123 (5.1)	116 (4.8)	117 (4.8)	122 (5.0)
	광산품	1 (0.0)	2 (0.1)	2 (0.1)	2 (0.1)
	공산품	409 (16.9)	405 (16.7)	402 (16.4)	395 (16.1)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19 (0.8)	20 (0.8)	20 (0.8)	20 (0.8)
	건설	166 (6.9)	169 (7.0)	179 (7.3)	180 (7.4)
	서비스	1,695 (70.3)	1,716 (70.7)	1,733 (70.7)	1,730 (70.6)

주 : 1)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 ② 서비스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공산품(6.2명)의 2.06배 수준

\*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

— 최종수요 항목별로는 소비가 12.5명, 투자는 10.1명, 수출은 6.7명임

### 부문별·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	체	11.4	11.2	10.6	10.1	8.3	8.2	7.7	7.4
부문별 <sup>1)</sup>	농림수산물	24.5	23.8	23.2	23.7	4.6	4.5	4.2	4.2
	광산품	8.4	9.1	9.7	9.2	6.7	7.6	8.2	7.8
	공산품	7.2	7.0	6.5	6.2	5.4	5.4	4.9	4.7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4.1	4.4	4.2	4.1	3.3	3.6	3.4	3.4
	건설	12.6	11.8	11.2	11.0	9.4	8.9	8.5	8.5
	서비스	14.5	14.1	13.5	12.8	10.5	10.3	9.9	9.4
	기타	12.8	13.3	12.8	11.5	9.3	9.7	9.3	8.4
최종수요 항목별	소비	14.0	13.6	13.1	12.5	9.9	9.7	9.3	8.9
	투자	11.5	11.0	10.4	10.1	8.8	8.4	8.1	7.9
	수출	7.9	7.8	7.0	6.7	6.0	5.9	5.3	5.0



# I

## 경제구조

### 1 총공급 및 총수요

#### 대외거래 비중 상승

- 2018년중 우리 경제의 재화 및 서비스 총공급(총수요)은 5,074.2조원으로 전년보다 213.2조원(4.4%) 증가
  - 총공급에서 국내 총산출이 차지하는 비중(85.8%→85.5%)이 0.3%p 하락한 반면 수입 비중(14.2%→14.5%)은 상승
  - 총수요에서 국내 최종수요 비중(36.0%→35.8%)은 0.2%p 하락하고 수출 비중(15.6%→15.7%)은 소폭 상승
- 대외거래 비중([수출+수입]/총공급)은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중 0.4%p 상승(29.8%→30.2%)

	수출물가	수입물가	(원유)	(천연가스)	(유연탄)
■ 2016년	96.7	95.8	83.4	68.3	96.0
■ 2017년	102.6	102.0	105.0	80.1	149.6
■ 2018년	103.4	108.4	133.5	100.0	150.7

자료 : 한국은행 수출입물가지수(원화 기준, 2015년=100)

#### 공급 및 수요 구조<sup>1)</sup>

(조원, %)

	총공급		=	총수요				대외거래 (A+D)
	국내총산출	수입(A)		국내수요 (B+C)	중간수요 (B)	최종수요		
						국내 <sup>2)</sup> (C)	수출(D)	
2016년	3,925.1 (86.6)	608.3 (13.4)	4,533.4 (100.0)	3,830.6 (84.5)	2,205.8 (48.7)	1,624.8 (35.8)	702.8 (15.5)	1,311.0 (28.9)
2017년 (E)	4,168.4 (85.8)	692.6 (14.2)	4,861.0 (100.0)	4,104.9 (84.4)	2,356.3 (48.4)	1,748.5 (36.0)	756.1 (15.6)	1,448.7 (29.8)
<b>2018년 (F)</b>	<b>4,336.6 (85.5)</b>	<b>737.6 (14.5)</b>	<b>5,074.2 (100.0)</b>	<b>4,277.1 (84.3)</b>	<b>2,463.2 (48.5)</b>	<b>1,814.0 (35.8)</b>	<b>797.1 (15.7)</b>	<b>1,534.7 (30.2)</b>
구성비 변화 (F-E, %p)	<-0.3>	<0.3>		<-0.1>	<0.1>	<-0.2>	<0.1>	<0.4>

주 : 1) ( )내는 총공급(=총수요) 대비 구성비

2) 국내 최종수요는 소비와 투자로 구성

## 2

## 산업구조

### 서비스 비중 확대

- 2018년 국내 총산출의 구성을 보면 **서비스** 비중(45.6%→46.2%)이 전년보다 **0.6%p 상승**한 반면 **공산품**(43.4%→43.1%)과 **건설**(6.6%→6.3%) 비중은 **하락**
  - 서비스는 연구개발, 금융보험 등 **생산자서비스**(19.8%→20.2%)를 중심으로 **상승**
  - 공산품의 경우 석유 및 화학제품 등 **기초소재제품**(16.2%→16.6%)이 **상승** 하였으나 운송장비 등 **조립가공제품**(19.2%→18.6%)은 **하락**
-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 비중**은 60.2%로 전년에 비해 **0.9%p 상승**
  - 금융보험 등 **생산자서비스**(27.8%→28.4%)와 공공행정, 의료보건 등 **사회 서비스**(14.7%→15.2%) 비중이 **상승**하고, 도소매 및 운송(11.1%→10.9%)은 소폭 **하락**

### 산출액 및 부가가치 구성

(%)

	산출액 구성			부가가치 구성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1.5	1.5	1.4	1.9	1.9	1.8
광업	0.1	0.1	0.1	0.1	0.1	0.1
제조업	43.3	43.4	43.1	29.4	29.9	29.5
소비재제품 <sup>1)</sup>	6.8	6.4	6.4	4.0	3.8	3.8
기초소재제품 <sup>2)</sup>	15.7	16.2	16.6	10.8	10.6	10.2
조립가공제품 <sup>3)</sup>	19.2	19.2	18.6	12.7	13.8	14.0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1.5	1.5	1.5	1.8	1.7	1.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2.8	2.7	2.8	2.7	2.4	2.0
건설	6.3	6.6	6.3	6.1	6.5	6.3
서비스	45.9	45.6	46.2	59.7	59.3	60.2
도소매 및 운송	10.2	10.0	9.9	11.5	11.1	10.9
생산자서비스 <sup>4)</sup>	19.8	19.8	20.2	27.9	27.8	28.4
사회서비스 <sup>5)</sup>	9.7	9.7	9.8	14.7	14.7	15.2
소비자서비스 <sup>6)</sup>	6.2	6.1	6.3	5.8	5.7	5.8
기타	0.1	0.1	0.1	0.0	0.0	0.0
전산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1)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인쇄, 기타 제조업제품(이하 동일)  
 2)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가공제품(이하 동일)  
 3)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이하 동일)  
 4) 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이하 동일)  
 5) 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이하 동일)  
 6) 음식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이하 동일)

### 3 투입구조

#### 부가가치율 및 중간재 국산화율 하락

□ 2018년 **부가가치율**(부가가치/총산출액)은 43.2%로 전년(43.5%)보다 **0.3%p 하락**하고, **수입의존도**(수입 중간투입/총산출액)는 **상승**(12.2%→12.7%)

—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석유제품 및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하락

— 이에 따라 기초소재제품, 전력·가스·수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국산화율**(국산품 투입액/중간투입액)은 **0.6%p 하락**(78.3%→77.7%)

부가가치율<sup>1)</sup>, 수입의존도<sup>2)</sup> 및 중간재 국산화율<sup>3)</sup>

(%)

	부가가치율			수입의존도			중간재 국산화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53.7	55.3	52.8	3.0	3.2	3.5	93.5	92.9	92.5
광산품	53.5	51.2	47.8	0.6	0.6	0.6	98.6	98.7	98.9
공산품	29.7	29.9	29.6	19.7	20.9	21.8	72.0	70.2	69.1
소비재제품	25.9	25.5	25.4	16.8	16.5	17.1	77.3	77.9	77.0
기초소재제품	30.3	28.5	26.4	24.4	26.9	29.4	65.0	62.3	60.1
조립가공제품	29.0	31.3	32.4	18.2	18.7	18.0	74.4	72.8	73.3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50.3	48.3	48.2	2.5	2.6	2.8	95.1	94.9	94.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3.1	37.6	31.3	25.8	30.8	35.0	54.7	50.6	49.0
건설	42.6	42.7	43.7	4.2	4.1	3.9	92.6	92.8	93.2
서비스	57.0	56.5	56.3	4.4	4.4	4.4	89.8	89.8	90.0
도소매 및 운송	49.1	48.5	47.5	8.0	7.7	8.1	84.3	85.0	84.5
생산자서비스	61.5	60.9	60.8	3.1	3.2	3.0	92.0	91.7	92.3
사회서비스	66.4	66.1	66.5	3.4	3.6	3.6	90.0	89.5	89.4
소비자서비스	40.9	40.1	39.8	4.1	4.3	4.2	93.0	92.9	93.0
전산업	43.8	43.5	43.2	11.5	12.2	12.7	79.5	78.3	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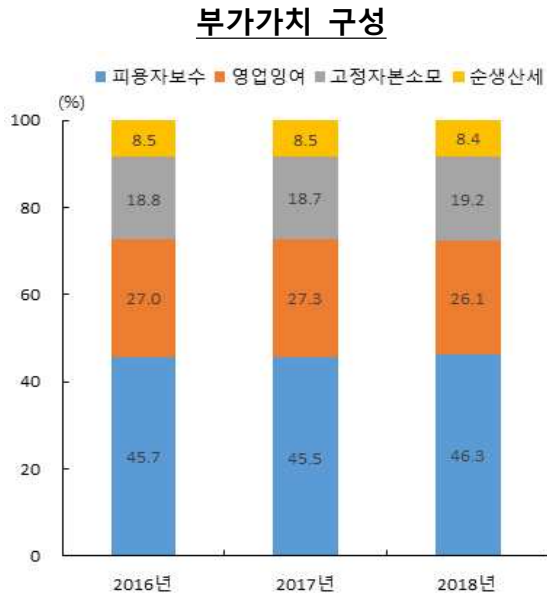
주 : 1) 부가가치/총산출액

2) 중간재 수입액/총산출액

3) 국산품 투입액/중간투입액

□ 부가가치의 항목별 구성은 **피용자보수** 비중(45.5%→46.3%)이 **0.8%p 상승**한 반면 **영업잉여** 비중(27.3%→26.1%)은 **1.2%p 하락**

□ 중간재의 구성을 보면 **광산품** 비중(5.5%→6.4%)이 **상승**하고, 공산품(52.6%→51.6%)과 서비스(35.0%→34.9%) 비중은 **하락**



**중간재 구성**

(%)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2.4	2.3	2.3
광산품	4.5	5.5	6.4
공산품	53.2	52.6	51.6
소비재	8.5	8.1	8.1
기초소재	25.2	25.4	25.5
조립가공제품	16.5	16.2	15.2
제조업가공산업용장비수리	3.1	3.0	2.9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0	3.9	4.0
건설	0.6	0.6	0.6
서비스	35.1	35.0	34.9
도소매 및 운송	11.0	10.7	10.5
생산자 서비스	19.6	19.7	19.9
사회 서비스	0.5	0.6	0.5
소비자 서비스	3.9	3.9	4.0
기타	0.2	0.2	0.2
계	100.0	100.0	100.0

## 4 최종수요

### 정부소비 비중 상승, 설비투자 비중 하락

□ 최종수요의 항목별 구성을 보면 **소비**(46.1%→46.6%)와 **수출**(30.2%→30.5%) 비중이 **상승**한 반면 **투자** 비중(23.7%→22.9%)은 **하락**

— 소비는 공공행정, 의료보건 등 **정부소비**(11.3%→11.7%)를 중심으로 **상승**

**최종수요 항목별 구성**

(%)

	2016년	2017년	2018년
소비	47.3	46.1	46.6
민간소비	35.9	34.8	34.9
정부소비	11.4	11.3	11.7
투자	22.5	23.7	22.9
민간고정자본형성	18.9	19.8	18.8
정부고정자본형성	3.3	3.3	3.3
재고증감	0.3	0.6	0.8
수출	30.2	30.2	30.5
최종수요계	100.0	100.0	100.0

- 민간소비지출 구성을 보면 운송장비 등 **내구재** 비중(7.6%→7.4%)이 **하락**한 반면 석유제품 등 **비내구재** 비중(15.1%→15.3%)은 **상승**
- 총고정자본형성은 **설비투자**(28.2%→27.6%)와 **건설투자**(44.9%→44.3%) 비중이 **하락**한 반면 연구개발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중(19.1%→20.4%)은 **상승**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 및 장비**(13.2%→12.3%)가 비교적 큰 폭 **하락**

**민간소비지출 구성**

	(%)		
	2016년	2017년	2018년
<b>내 구 재</b>	<b>7.7</b>	<b>7.6</b>	<b>7.4</b>
(운 송 장 비)	3.8	3.7	3.5
<b>비 내 구 재</b>	<b>15.1</b>	<b>15.1</b>	<b>15.3</b>
(석탄 및 석유제품)	1.7	1.8	1.9
<b>서 비 스</b>	<b>72.8</b>	<b>72.9</b>	<b>72.9</b>
도 소 매	9.9	9.8	9.7
음식점 및 숙박	10.7	10.8	11.0
금융 및 보험	7.9	7.9	8.1
부 동 산	14.2	14.1	14.2
교 육	6.9	6.7	6.5
기 타 서 비 스	23.2	23.6	23.4
<b>기 타<sup>1)</sup></b>	<b>4.5</b>	<b>4.3</b>	<b>4.3</b>
<b>민 간 소 비 계</b>	<b>100.0</b>	<b>100.0</b>	<b>100.0</b>

주 : 1) 농림수산물, 광산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

**총고정자본형성 구성**

	(%)		
	2016년	2017년	2018년
<b>설 비 투 자</b>	<b>27.0</b>	<b>28.2</b>	<b>27.6</b>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4.6	4.4	4.5
전 기 장 비	2.0	1.9	1.9
기 계 및 장 비	10.7	13.2	12.3
운 송 장 비	7.9	7.1	7.1
기 타 설비투자	1.8	1.6	1.8
<b>건 설 투 자</b>	<b>45.0</b>	<b>44.9</b>	<b>44.3</b>
<b>지식재산생산물투자</b>	<b>19.7</b>	<b>19.1</b>	<b>20.4</b>
(연 구 개 발)	14.0	13.5	14.8
<b>기 타<sup>1)</sup></b>	<b>8.3</b>	<b>7.8</b>	<b>7.7</b>
<b>총고정자본형성계</b>	<b>100.0</b>	<b>100.0</b>	<b>100.0</b>

주 : 1) 육성자산, 부동산 개발 및 공급, 소유권 이전 비용 등

## 5

## 대외거래

## 1. 수출

## 공산품과 서비스 모두 수출률 상승

□ 2018년 수출률(수출액/총산출)은 18.4%로 전년(18.1%)보다 0.3%p 상승

— 기초소재제품(29.7%→31.1%)과 조립가공제품(50.0%→50.5%)을 중심으로 공산품(35.7%→36.2%) 수출률이 0.5%p 상승

□ 한편, 수출품의 구성은 서비스 비중(14.3%→14.9%)이 0.6%p 상승하고 공산품 비중(85.4%→84.9%)은 0.5%p 하락

수출률<sup>1)</sup> 및 수출품 구성

(%)

	수출률			수출품 구성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1.3	1.3	1.3	0.1	0.1	0.1
광산품	2.2	2.1	2.1	0.0	0.0	0.0
공산품	34.9	35.7	36.2	84.4	85.4	84.9
소비재제품	17.2	15.8	15.5	6.6	5.6	5.4
기초소재제품	28.4	29.7	31.1	24.8	26.6	28.2
조립가공제품	49.1	50.0	50.5	52.6	53.0	51.1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4.3	3.7	3.4	0.4	0.3	0.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0.5	0.5	0.4	0.1	0.1	0.1
건설	0.1	0.1	0.1	0.0	0.0	0.0
서비스	6.0	5.7	5.9	15.4	14.3	14.9
도소매 및 운송	14.9	14.2	15.1	8.5	7.8	8.1
생산자서비스	4.8	4.8	4.8	5.3	5.2	5.3
사회서비스	0.2	0.1	0.1	0.1	0.1	0.1
소비자서비스	4.2	3.8	4.2	1.4	1.3	1.4
전산업	17.9	18.1	18.4	100.0	100.0	100.0

주 : 1) 수출액/총산출액

## 2. 수 입

###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률 상승

□ 2018년 **수입률**(수입액/총공급)은 14.5%로 전년(14.2%)보다 **0.3%p 상승**

— **광산품**(96.3%→97.2%), **소비재제품**(21.5%→22.7%)을 중심으로 **상승**

□ 수입품의 구성을 보면 **광산품** 비중(18.0%→21.2%)이 **3.2%p 상승**한 반면  
공산품(64.6%→62.2%)과 서비스(15.6%→15.0%) 비중은 하락

수입률<sup>1)</sup> 및 수입품 구성

(%)

	수입률			수입품 구성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 립 수 산 품	16.4	16.3	16.0	1.9	1.7	1.6
광 산 품	95.4	96.3	97.2	15.5	18.0	21.2
공 산 품	19.2	19.8	19.7	66.1	64.6	62.2
소 비 재 제 품	20.9	21.5	22.7	11.6	10.6	11.0
기 초 소 재 제 품	18.6	18.8	19.0	23.1	22.6	22.9
조 립 가 공 제 품	19.4	20.5	19.7	29.8	29.9	26.8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13.5	14.4	14.6	1.6	1.5	1.5
전 력·가 스·수 도 및 폐 기 물	0.1	0.1	0.1	0.0	0.0	0.0
건 설	0.0	0.0	0.0	0.0	0.0	0.0
서 비 스	5.2	5.4	5.2	16.4	15.6	15.0
도 소 매 및 운 송	5.6	5.5	5.9	3.9	3.5	3.6
생 산 자 서 비 스	6.0	6.4	5.8	8.2	8.1	7.3
사 회 서 비 스	0.9	0.9	0.8	0.6	0.5	0.5
소 비 자 서 비 스	8.5	8.7	8.8	3.7	3.5	3.6
전 산 업	13.4	14.2	14.5	100.0	100.0	100.0

주 : 1) 수입액/총공급액

## II

## 산업연관효과

### 1 부문별 유발계수

※ 부문별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단위 발생함에 따라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부가가치·수입의 크기를 나타내며, 투입산출표의 중간투입 구조를 전제로 도출

#### 중간재 국산화율 하락으로 생산유발계수 하락

- 2018년 **생산유발계수**는 **중간재 국산화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하락** (1.795→1.790)
- **부가가치율**이 **낮아지고** **수입의존도**는 **높아짐**에 따라 **부가가치유발계수** (0.780→0.773)가 **하락**하고, **수입유발계수** (0.220→0.227)는 **상승**
  -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제품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큰 폭 **하락**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sup>1)2)</sup>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1.805	1.760	1.798	0.856	0.854	0.840	0.144	0.146	0.160
광산	1.806	1.842	1.905	0.903	0.894	0.881	0.097	0.106	0.119
제조업	1.939	1.898	1.887	0.664	0.648	0.635	0.336	0.352	0.365
소비재제품	2.065	2.080	2.073	0.706	0.703	0.688	0.294	0.297	0.312
기초소재제품	1.803	1.789	1.785	0.628	0.593	0.558	0.372	0.407	0.442
조립가공제품	1.987	1.921	1.910	0.661	0.657	0.660	0.339	0.343	0.340
제조업가공, 산업용장비수리	1.874	1.905	1.906	0.867	0.854	0.845	0.133	0.146	0.155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30	1.536	1.575	0.658	0.598	0.538	0.342	0.402	0.462
건설	1.983	1.972	1.954	0.817	0.811	0.811	0.183	0.189	0.189
서비스	1.676	1.681	1.685	0.883	0.877	0.873	0.117	0.123	0.127
도소매 및 운송	1.756	1.772	1.787	0.838	0.834	0.822	0.162	0.166	0.178
생산자서비스	1.609	1.619	1.626	0.915	0.909	0.908	0.085	0.091	0.092
사회서비스	1.541	1.542	1.537	0.901	0.895	0.890	0.099	0.105	0.110
소비자서비스	2.025	2.038	2.045	0.833	0.825	0.818	0.167	0.175	0.182
전산업	1.807	1.795	1.790	0.791	0.780	0.773	0.209	0.220	0.227

주 : 1) 국산품 수요 1단위당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액의 크기

2) 산업연관표를 1부문, 7부문, 13부문 등으로 통합하여 계산된 유발계수



## 2 최종수요 유발효과

※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계수는 당해년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단위당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액의 크기를 의미하며, 항목별 최종수요에 의한 유발액을 최종수요로 나눈 값임

### 국내 총산출 및 부가가치의 소비 의존도 상승

□ 최종수요 항목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0.848), 투자(0.810), 수출(0.643) 순으로 소비와 수출의 격차가 전년보다 소폭 확대(0.202→0.205)

— 소비의 생산유발계수는 1.692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하락(0.855→0.848)

— 투자는 부가가치유발계수(0.814→0.810)와 수입유발계수(0.290→0.288)가 소폭 하락

—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전년대비 0.010p 하락(0.653→0.643)

####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sup>1)</sup>, 부가가치유발계수<sup>2)</sup> 및 수입유발계수<sup>3)</sup>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b>소</b>	<b>비</b>	<b>1.688</b>	<b>1.691</b>	<b>1.692</b>	<b>0.862</b>	<b>0.855</b>	<b>0.848</b>	<b>0.211</b>	<b>0.221</b>	<b>0.228</b>
민간	소비지출	1.750	1.756	1.761	0.846	0.839	0.831	0.248	0.260	0.269
정부	소비지출	1.514	1.514	1.509	0.906	0.899	0.894	0.094	0.101	0.106
<b>투</b>	<b>자</b>	<b>1.938</b>	<b>1.943</b>	<b>1.938</b>	<b>0.824</b>	<b>0.814</b>	<b>0.810</b>	<b>0.269</b>	<b>0.290</b>	<b>0.288</b>
민간	고정자본형성	1.925	1.931	1.928	0.826	0.818	0.816	0.274	0.294	0.286
정부	고정자본형성	2.006	2.012	2.009	0.819	0.810	0.807	0.243	0.239	0.251
재	고증감	1.996	1.927	1.829	0.795	0.684	0.663	0.243	0.428	0.501
<b>수</b>	<b>출</b>	<b>1.890</b>	<b>1.838</b>	<b>1.828</b>	<b>0.668</b>	<b>0.653</b>	<b>0.643</b>	<b>0.335</b>	<b>0.351</b>	<b>0.361</b>
<b>최</b>	<b>종</b>	<b>1.807</b>	<b>1.795</b>	<b>1.790</b>	<b>0.791</b>	<b>0.780</b>	<b>0.773</b>	<b>0.261</b>	<b>0.277</b>	<b>0.283</b>
	<b>수</b>									
	<b>요</b>									
	<b>계</b>									

주 : 1)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2)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3) 최종수요(국산+수입)에 의한 수입유발액 ÷ 최종수요(국산+수입)

□ 2018년 국내 총산출의 최종수요 항목별 의존도를 보면, 소비가 총산출의 43.2%를 유발하였고 다음으로 수출(33.4%), 투자(23.5%) 순이었음

— 소비(42.7%→43.2%)와 수출(33.2%→33.4%) 의존도가 상승하고 투자(24.1%→23.5%)에 의해 유발된 비중은 하락

□ 총부가가치에 대한 유발 비중은 소비(50.1%), 수출(27.2%), 투자(22.7%) 순으로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 비중이 전년보다 0.4%p 상승

□ 총수입에 대한 유발 비중은 수출(39.0%), 소비(37.7%), 투자(23.4%) 순으로 수출의 수입 유발 비중이 전년보다 0.7%p 상승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 부가가치 및 수입 유발비중**

(%)

		생산유발비중			부가가치유발비중			수입유발비중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b>소</b>	<b>비</b>	<b>43.3</b>	<b>42.7</b>	<b>43.2</b>	<b>50.5</b>	<b>49.7</b>	<b>50.1</b>	<b>38.1</b>	<b>36.9</b>	<b>37.7</b>
민간	소비지출	33.1	32.4	32.6	36.5	35.6	35.6	34.0	32.8	33.3
정부	소비지출	10.2	10.3	10.6	14.0	14.0	14.5	4.1	4.1	4.4
<b>투</b>	<b>자</b>	<b>23.0</b>	<b>24.1</b>	<b>23.5</b>	<b>22.3</b>	<b>23.2</b>	<b>22.7</b>	<b>23.2</b>	<b>24.8</b>	<b>23.4</b>
민간	고정자본형성	19.0	19.9	19.1	18.6	19.3	18.7	19.9	21.1	19.0
정부	고정자본형성	3.6	3.7	3.7	3.4	3.4	3.4	3.1	2.8	2.9
재	고증감	0.4	0.6	0.7	0.3	0.5	0.6	0.3	0.9	1.4
<b>수</b>	<b>출</b>	<b>33.7</b>	<b>33.2</b>	<b>33.4</b>	<b>27.2</b>	<b>27.1</b>	<b>27.2</b>	<b>38.7</b>	<b>38.3</b>	<b>39.0</b>
<b>최</b>	<b>종</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수</b>	<b>요</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100.0</b>
<b>계</b>										

### Ⅲ 취업구조 및 노동유발효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수정사항 반영 및 전업환산방식 변경 등으로 2010~2017년 고용표가 수정됨

#### 1 취업구조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3.4만명 감소

□ 전업환산(FTE; full-time equivalent) 취업자\*는 2,45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0.1%) 감소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31.2만명 증가하였으나 임시일용직(-27.8만명)과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6.8만명)는 감소

□ 취업형태별 구성은 임금근로자가 73.5%,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26.5%

— 상용직 비중이 54.2%로 전년에 비해 1.4%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이 60.0%, 여성이 40.0%로 전년에 비해 여성 비중이 0.1%p 상승

— 특히 여성 상용직(499만명) 비중이 전년보다 0.9%p 상승하면서 전체 여성 취업자(980만명)의 절반을 상회

취업형태 및 성별 취업구조

		2016년		2017년(A)		2018년(B)		증감(B-A)	
		2,428	(100.0)	2,453	(100.0)	2,450	(100.0)	-3.4	[-0.1]
취업 형태별	임금근로자	1,778	(73.3)	1,796	(73.2)	1,799	(73.5)	3.4	[0.2]
	상용직	1,262	(52.0)	1,296	(52.8)	1,327	(54.2)	31.2	[2.4]
	남성	804	(33.1)	818	(33.3)	828	(33.8)	10.3	[1.3]
	여성	458	(18.9)	478	(19.5)	499	(20.4)	20.9	[4.4]
	임시·일용직	516	(21.3)	500	(20.4)	473	(19.3)	-27.8	[-5.6]
	자영·무급가족	649	(26.7)	657	(26.8)	650	(26.5)	-6.8	[-1.0]
성별	남성	1,464	(60.3)	1,474	(60.1)	1,470	(60.0)	-4.4	[-0.3]
	여성	964	(39.7)	979	(39.9)	980	(40.0)	0.9	[0.1]

주 : 1) ( )내는 총 취업자 대비 구성비, [ ]내는 증감률

## 2 부문별 취업구조

### 공산품 취업자 비중 축소

□ 전체 취업자의 70.6%가 서비스 종사자이고, 다음으로 공산품 16.1%, 건설 7.4%, 농림수산물 5.0% 순임

— 소비재제품과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등 공산품 비중이 0.3%p 하락

□ 임금근로자는 서비스 71.2%, 공산품 19.3%, 건설 7.9% 순으로 나타났음

— 보건 및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사회서비스 비중이 0.4%p 상승

부문별 취업자수 및 임금근로자수

(만명, %)

	취업자			임금근로자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116 (4.8)	117 (4.8)	122 (5.0)	11 (0.6)	10 (0.6)	11 (0.6)
광산품	2 (0.1)	2 (0.1)	2 (0.1)	2 (0.1)	2 (0.1)	2 (0.1)
공산품	405 (16.7)	402 (16.4)	395 (16.1)	355 (19.9)	351 (19.5)	347 (19.3)
소비재제품	98 (4.0)	96 (3.9)	93 (3.8)	74 (4.2)	73 (4.1)	71 (3.9)
기초소비재제품	107 (4.4)	104 (4.3)	105 (4.3)	96 (5.4)	93 (5.2)	94 (5.2)
조립가공제품	149 (6.1)	152 (6.2)	151 (6.2)	139 (7.8)	141 (7.8)	140 (7.8)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51 (2.1)	48 (2.0)	46 (1.9)	46 (2.6)	44 (2.4)	42 (2.3)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	20 (0.8)	20 (0.8)	20 (0.8)	18 (1.0)	18 (1.0)	18 (1.0)
건설	169 (7.0)	179 (7.3)	180 (7.4)	129 (7.3)	138 (7.7)	141 (7.9)
서비스	1,716 (70.7)	1,733 (70.7)	1,730 (70.6)	1,264 (71.1)	1,277 (71.1)	1,280 (71.2)
도소매및운송	489 (20.1)	491 (20.0)	483 (19.7)	280 (15.7)	288 (16.0)	286 (15.9)
생산자서비스	445 (18.3)	450 (18.4)	453 (18.5)	391 (22.0)	392 (21.8)	393 (21.8)
사회서비스	424 (17.5)	432 (17.6)	441 (18.0)	382 (21.5)	391 (21.8)	399 (22.2)
소비자서비스	358 (14.8)	360 (14.7)	353 (14.4)	211 (11.9)	207 (11.5)	202 (11.2)
합계	2,428 (100.0)	2,453 (100.0)	2,450 (100.0)	1,778 (100.0)	1,796 (100.0)	1,799 (100.0)

주 : 1) ( )내는 부문별 구성비

### 3 노동계수

※ 취업(고용)계수는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

**서비스의 취업계수는 8.6명, 공산품은 2.1명**

□ 2018년중 전산업 취업계수는 5.6명으로 서비스가 8.6명, 건설은 6.6명, 공산품은 2.1명임

— 서비스 부문 중 소비자서비스가 13.0명, 도소매 및 운송은 11.2명, 사회 서비스는 10.3명임

□ 전산업 고용계수는 4.1명으로 서비스가 6.4명, 건설은 5.2명, 공산품은 1.9명임

— 서비스 부문에서는 사회서비스가 9.3명으로 가장 높고 소비자서비스(7.5명), 도소매 및 운송(6.7명) 순임

#### 부문별 취업계수 및 고용계수

(명/10억원)

	취업계수			고용계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19.3	19.0	19.5	1.8	1.7	1.7
광산품	3.8	4.4	3.9	3.8	4.4	3.9
공산품	2.4	2.2	2.1	2.1	1.9	1.9
소비재제품	3.7	3.6	3.4	2.8	2.7	2.6
기초소재제품	1.7	1.5	1.5	1.6	1.4	1.3
조립가공제품	2.0	1.9	1.9	1.8	1.8	1.7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8.4	7.8	7.3	7.6	7.0	6.6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8	1.7	1.7	1.6	1.5	1.5
건설	6.8	6.5	6.6	5.2	5.0	5.2
서비스	9.5	9.1	8.6	7.0	6.7	6.4
도소매 및 운송	12.2	11.8	11.2	7.0	6.9	6.7
생산자서비스	5.7	5.4	5.2	5.0	4.8	4.5
사회서비스	11.2	10.7	10.3	10.1	9.7	9.3
소비자서비스	14.8	14.1	13.0	8.7	8.1	7.5
전산업	6.2	5.9	5.6	4.5	4.3	4.1

## 4

## 노동유발효과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비중 56.6%

## (부문별 유발효과)

※ 취업(고용)유발계수는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를 의미

□ 2018년중 전산업 취업유발계수는 10.1명으로 농림수산물 23.7명, 서비스 12.8명, 건설 11.0명의 순으로 높음

— 서비스 취업유발계수(12.8명)는 공산품(6.2명)의 2.06배

□ 전산업 고용유발계수는 7.4명으로 서비스 9.4명, 건설 8.5명, 광산품 7.8명의 순임

— 서비스 부문 중에는 사회서비스(11.4명)와 소비자서비스(11.2명)가 높게 나타남

## 부문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농림수산물	23.8	23.2	23.7	4.5	4.2	4.2
광산품	9.1	9.7	9.2	7.6	8.2	7.8
공산품	7.0	6.5	6.2	5.4	4.9	4.7
소비재제품	11.8	11.7	11.2	6.9	6.8	6.4
기초소재제품	5.6	5.1	4.8	4.4	4.0	3.7
조립가공제품	6.2	5.7	5.5	5.0	4.6	4.4
제조임가공·산업용장비수리	13.6	12.8	12.0	11.2	10.6	10.0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4.4	4.2	4.1	3.6	3.4	3.4
건설	11.8	11.2	11.0	8.9	8.5	8.5
서비스	14.1	13.5	12.8	10.3	9.9	9.4
도소매 및 운송	17.2	16.8	16.0	10.4	10.3	9.9
생산자서비스	9.6	9.2	8.7	7.8	7.5	7.1
사회서비스	14.7	14.1	13.4	12.4	11.9	11.4
소비자서비스	21.6	20.8	19.5	12.8	12.0	11.2
전산업	11.2	10.6	10.1	8.2	7.7	7.4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

□ 2018년중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는 소비 12.5명, 투자 10.1명, 수출 6.7명임

\* 국산품에 대한 소비, 투자, 수출이 각각 10억원씩 발생할 경우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

□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의존도\***는 소비가 56.6%, 수출과 투자는 모두 21.7%임

\* 우리나라의 취업자 2,450만명 중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 각 항목에 의해 유발된 인원의 구성비

— 전년과 비교하면 소비와 수출은 각각 0.2%p, 0.1%p씩 상승하고 투자는 0.3%p 하락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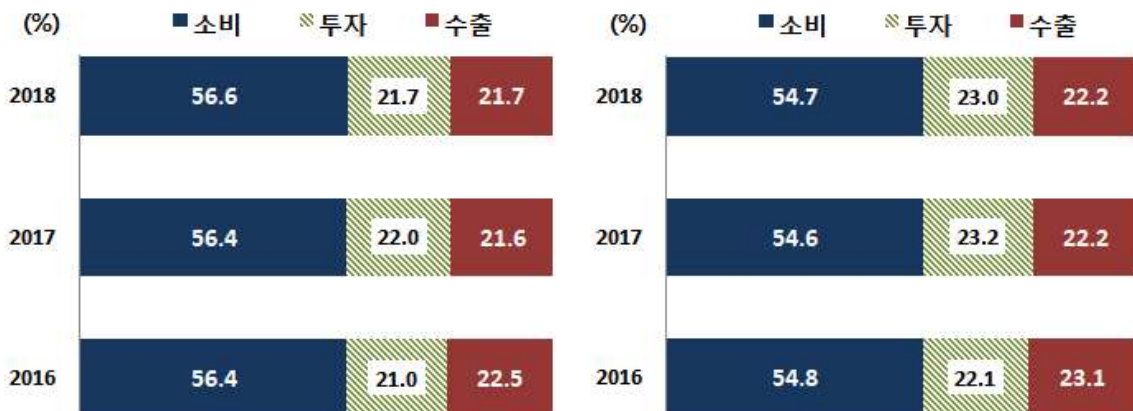
(명/10억원)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 비	13.6	13.1	12.5	9.7	9.3	8.9
투 자	11.0	10.4	10.1	8.4	8.1	7.9
수 출	7.8	7.0	6.7	5.9	5.3	5.0
전 체	11.2	10.6	10.1	8.2	7.7	7.4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 및 고용 유발 구성**

(취업유발 구성)

(고용유발 구성)



## 고용표 주요 개편 내용

### 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시계열 수정 사항 소급 반영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 시계열이 수정됨에 따라 2010년 이후 고용표를 소급

### ② 전업환산(FTE) 측정방식 개선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주당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전업여부를 구분\*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전환

\* 주업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이면 전일제, 40시간 미만은 시간제

- 기존방식(임시·일용직을 상용직 기준으로 환산)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기존방식] :  $A + B \times (b \div a)$

[개선방식] :  $F + P \times (p \div f)$

인 원 수

	전일제	시간제	계
상용			A
임시일용			B
계	F	P	

근 무 시 간

	전일제	시간제	평균
상용			a
임시일용			b
평균	f	p	

\* 기존방식은 전일제로 근무하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클수록, 임시·일용/상용의 근무시간 비율 (b/a)이 시간제/전일제 비율(p/f)보다 낮을수록 하향 편익됨

### ③ 총근로시간\* 현실 반영도 개선

\* SNA의 권고에 따라 2010년 고용표부터 총근로시간을 부지표로 공표

- 경제활동인구조사(매월) 마이크로데이터의 응답자별 근로시간을 이용함으로써 계절성이 뚜렷한 산업(농림어업 등)의 월별 총근로시간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편차를 반영



## 주요 용어 해설

- ▶ **총공급** = 국내 총산출 + 수입
  - ▶ **총수요** = 국내수요(중간수요 + 소비 + 투자) + 국외수요(수출)
  -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총산출액
  - ▶ **중간투입률** = 중간투입액 ÷ 총산출액
  - ▶ **중간재 국산화율** = 국산 중간재 투입액 ÷ 중간투입액
  - ▶ **수입의존도** = 수입 중간재 투입액 ÷ 총산출액
  - ▶ **수출률** = 수출액 ÷ 총산출액
  - ▶ **수입률** = 수입액 ÷ 총공급액
  - ▶ **생산유발계수** :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의 크기
  - ▶ **부가가치유발계수** :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
  - ▶ **수입유발계수** : 어떤 상품의 수요가 1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수입액의 크기
  - ▶ **취업자** : 임금근로자(상용직+임시·일용직)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 ▶ **전업환산 취업자** :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고용량 측면의 취업자 수
  - ▶ **취업(고용)계수** :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소요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를 의미하며, 노동생산성과는 역의 관계에 있음
  - ▶ **취업(고용)유발계수** : 국산품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상품을 만드는 부문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전업환산 취업자수(임금근로자수)
- ※ 취업 및 고용관련 계수는 당해년 가격 산출액(10억원) 대비 전업환산근로자의 비율이므로 시계열 해석시 유의